

# ‘히든싱어 5’ 개봉박두…3년 만의 화려한 컴백



전인권 · 양희은 · 강타 · 케이윌 등 티저 공개

JTBC ‘히든싱어’가 오는 6월 시즌5로 돌아온다. ‘히든싱어 시즌5’가 지난 8일 전인권 양희은부터 강타·케이윌·에일리까지 대한민국 레전드 가수들이 충출동한 티저를 통해 3년 만의 화려한 컴백을 예고한다. 15일 ‘히든넘버 5’를 공개했다. 가수와 팬, 그리고 시청자까지 모두 잡았던 지난 6년간의 기록을 담은 ‘히든넘버 5’를 공개했다.

## # 3년간의 뜨거운 러브콜

‘히든싱어’가 3년 만의 귀환을 결정한 데는 시청자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히든싱어’의 조승우 CP는 “MC 전현무를 비롯해 주위의 많은 분이 시즌5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덕에 시즌5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랑은 지난 시즌들의 압도적인 시청률로 입증된 바 있다.

먼저 ‘히든싱어’, 왕중왕전의 경우 9.1% (아하) 네슨 코리아 수도권 유료구구 기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평가를 거뒀다. 이후 시즌에

서도 ‘히든싱어’는 유의미한 시청률을 기록했고 그뿐만 아니라 중국, 태국, 베트남, 이탈리아 미국 등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등 한국을 넘어 세계의 러브콜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 # 시즌5의 저력, 가수가 진짜 가수가 되는 무대

‘히든싱어’가 시즌5를 맞이할 수 있었던 힘은 다름 아닌 무대. 원조 가수와 모창 능력자가 목소리부터 서로의 숨결까지 공유하면서 함께 만드는 무대는 보는 이들은 물론 무대 위의 이들에게도 감동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무대에 지금은 볼 수 없는 그리운 얼굴을 소환하기도 해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히든싱어’는 각고의 노력 끝에 고인이 된 김광석과 신혜철을 원조 가수로 등장 시켜 이들을 추억하던 많은 시청들에게 깊은 울림을 안겼다. 모창 능력자들은 그리운 원조 가수들과 함께 그때 그 시절의 감동을 완벽하게 재현해 현장은 물론 아방극장까지 진한 감동으로 물들었다.

## # 원조 가수 49명과 모창 능력자 247명

지난 ‘히든싱어’에는 총 49명의 원조 가수와 247명의 모창 능력자가 기적의 무대를 만들었다. 이는 ‘모창’이라는 순수 예능 코드를 전면에 내세운 ‘히든싱어’에서 가능한 일로 더욱 뜻이 깊다.

특히 모창 능력자들은 단순 모창을 넘어선 진한 팬심을 보였다. 원조 가수를 데뷔 초부터 줄곧 지켜본 골수팬은 물론 사제지간 등 각자의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을 밝히며 원조 가수 그 자체를 애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원조 가수의 작은 습관부터 더 나아가 생김새까지 닮은 모습으로 원조 가수를 감동케 해 훈훈함을 선사했다.

## # 모창 능력자, 역대 최다 득표 285표

역대 최다 득표의 주인공은 ‘히든싱어’의 ‘용접공 임창정’ 조현민이다. 조현민은 임창정 편의 우승자로 왕중왕전에 도전, 285표를 획득해 역대급 기록을 세우며 당당히 생방송 결승전에 진출했다. 이후 조현민

은 가수로 당당하게 데뷔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의 기록은 이후 시즌3과 4에서도 이어져 눈길을 끈다. 이에 이번 ‘히든싱어’에서 ‘용접공 임창정’ 조현민의 기록을 갤 새로운 능력자 가 등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히든싱어’는 오는 6월 중에 첫 방송을 확정 짓고 모창 능력자를 모집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깜짝 공개된 티저에서는 전인권 양희은 강타·케이윌·에일리 등 장르와 세대를 불문한 가수가 충출동해 시선을 강탈했다.

이들은 모창 능력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혀 파연 이들이 ‘히든싱어’에 출연할 것인지 많은 이들의 관심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능력자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검색창에 ‘히든싱어’를 검색해 친구로 등록한 뒤 모창 뉴스 파일을 전송하면 손쉽게 지원할 수 있다.

‘히든싱어’는 강타, 김동률, 나얼, 린 박효신, 바다, 비, 에일리, 이승기, 이소라, 이승철, 자이언트, 전인권, 케이윌, 흥진영 등 전국에 걸쳐 끼 많은 모창 능력자들을 모집 중이다.

## ‘어벤져스3’ 가고 ‘데드풀2’ 온다, 믿고보는 마블 캐릭터



속 편을 기대하게 만든다 (IndieWire),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다(Collider)”, “1편보다 웃기고 화끈하며 1편 만큼의 감동도 있다 (ComicBookMovie.com)” 등 호평을 쏟아내 기대감을 높였다.

“아주 강렬한 R등급 영화다 (IndieWire)”, “완전히 대답하고 제대로 먹힌다(ComicBookMovie.com)” 등 데드풀 특유의 화끈한 액션과 거칠없는 입담을 이번에도 매력적으로 잘 살렸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영화 시장 가장 재미있는 끼기영상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엔딩 크레딧 씬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미국의 대부분 영화매체가 “역대급 끼기영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에선 라이언 레이놀즈가 ‘복면가왕’에 깜짝 출연하며 호감도를 더욱 높였다. 15일 현재 65%가 넘는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어벤져스’ 데드풀 2로 이어지는 마블의 연타석 흥행 흘련이 터질 전망이다.

데드풀 2는 액션은 기본, 거칠없는 입담과 유머로 중무장한 마블 역사상 가장 매력 터지는 히어로 데드풀이 미래에서 온 위기의 히어로 케이블을 만나 원치 않는 힘을 결성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피플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로 뽑힌 라이언 레이놀즈가 데드풀 역으로 다시 돌아오고, ‘아토믹 블론드’를 통해 스티일리시한 액션과 감각적인 영상으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데이빗 레이시지가 메가폰을 잡았다.

데드풀 2는 16일 개봉한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떠나고 데드풀 2가 찾아온다. 믿고 보는 마블 캐릭터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달 25일 개봉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전민영화에 등극했다. 오역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기록 행진을 펼쳤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10년 역사를 총 결산하는 클라이맥스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내년 5월 개봉 예정인 ‘어벤져스 4’의 기대치는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

이제 데드풀이 찾아온다. 현재 미국 코미디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캐릭터는 DC의 할리퀸, 마블의 데드풀이다. 데드풀은 쉴 새 없이 쏟아내는 입담으로 대중을 사로 잡았다.

데드풀 2는 미국 현지에서 “인피니티 워”보다 낫다”는 호평 속에 흥행 열풍을 예고했다. 외신은 “1편보다 더 재미있고 진정으로 흥분했다(People)”, “1편보다 재미있고

특히 지난 2016년 개봉한 영화 ‘데드풀’은 라이언 레이놀즈의 열연에 힘입어 전 세계에서 7억불 이상의 흥행 수익을 거두며 19금 히어로 무비 장르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했다.

마블 캐릭터의 강점 중 하나는 친근감이다. 데드풀 2의 예고편에서 알 수 있듯, DC 캐릭터는 다소 어두운 반면, 마블 캐릭터는 유쾌하다. 극중에서 데드풀이 케이블(조슈 브로虑린)에게 “왜 이렇게 어두워? DC 유니버스에서 왔어?”라고 말하는 대목은 양쪽의 특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데드풀 2는 미국 현지에서 “인피니티 워”보다 낫다”는 호평 속에 흥행 열풍을 예고했다. 외신은 “1편보다 더 재미있고 진정으로 흥분했다(People)”, “1편보다 재미있고

‘데드풀 2’는 16일 개봉한다.

## ‘역대급 컴백’ 방탄소년단이기에 가능한 것들



그룹 방탄소년단이 그야말로 ‘역대급 컴백’을 앞두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18일 오후 6시, 세 번째 정규 앨범 LOVE YOURSELF 轉 'Tear'를 발매한다. 이번 앨범은 Y-O-U-R 총 네 가지 버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타이틀곡 FAKE LOVE’는 운명인 줄 알았던 사연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내용으로 이번 앨범의 테마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런지 록(Grunge Rock) 기타 사운드와 그루비한 트랩 비트가 기이한 음울함을 자아내는 이모 힙합(Emo Hip hop) 장르의 곡으로 방탄소년단의 어두운 감성을 느낄 수 있다.

◆ 2018 빌보드 뮤직 어워드 컴백 무대

방탄소년단은 오는 20일(현지시

SHOW’를 펼친다. 이번 컴백쇼를 통해 방탄소년단은 국내 활동의 신호탄을 쏘게 될 예정. 명불허전 글로벌 대세로 발돋움한 방탄소년단이 약 8개월 만의 공백을 깨고 돌아오는 만큼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이번 컴백쇼에 대한 기대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BTS COMEBACK SHOW’는 방탄소년단의 콘텐츠 만으로 90분 동안 차워질 예정이다.

이번 컴백 앨범의 타이틀곡 무대를 비롯해 수록곡의 무대는 이번 ‘BTS COMEBACK SHOW’를 통해 최초 공개된다. 또한 지난 앨범의 수록곡 중 방송에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무대를 펼칠 것이라 밝혀 궁금증을 자아낸다.

## ◆ 국내 선주문량만 144만장

방탄소년단의 세 번째 정규 앨범 LOVE YOURSELF 轉 'Tear'의 국내 선주문량은 144만장을 달성, 다시 한 번 BTS 열풍을 예고하고 있다.

또 일본 레코드협회가 발표한 ‘골드 디스크 인정 작품’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일본 정규 3집 ‘FACE YOURSELF’는 25만장 이상의 판매량을 돌파해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해 5월 발매한 싱글 ‘피 땀 눈물(血 汗 泪)’과 12월 발매한 싱글 ‘MIC Drop/DNA/Crystal Snow’에 이은 세 번째 플래티넘 기록이다.

오늘의 운세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음력 4월 2일)



▶▶▶ 재운도 있으나 지출도 많다. 소원 하던 일이 이뤄지지 만, 자녀로 인해 신경 쓸 일 생긴다. 옛 친구가 찾아와 반나운 소식을 들었으나 허전한 마음은 매일 반 가슴으로 사랑하라. □, Ⓜ, Ⓝ, Ⓞ 성씨 과목을 삼가야 한다.



▶▶▶ 타인을 무시하면 결국 자신도 존경받을 수 없는 법이다. 자만심은 절대 금물이다. 겸손한 자세로 자기 일에만 초지기만 하라. 미래를 고려해 근면할 필요가 있다. 1, 7, 11월생 자식 텃에 군침할 듯하다.



▶▶▶ 풀리지 않던 어려운 일이 상사나 동료 도움으로 해결될 듯하다. 당신의 고지식한 성격이 부드럽게 풀리는 하루가 되겠다. 미혼자는 서두를 얹어 서서히 진행할 때 좋은 소식이 들리 듯하다. 1, 5, 9월생 직곡성을 보이며라.



▶▶▶ 열심히 해도 실적이 별로 없다 생각하지 말라. 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소소한 일로 부부간 지난친 자준심을 내세우다 큰 회문을 서로 자초할 수 있다. 4, 8, 12월생 가정 화목이 아이들 탈선을 막는 길임을 알라.



▶▶▶ 남에게 힘이 돼주려면 정신과 육체를 하나로 통일해 진심으로 도와주라. 사랑하려면 아낌없이 하되 가식적인 사랑은 오래가지 않는다. 사랑은 오늘보다 내일의 발전을 기대하며 사는 이기적인 동물임을 알라. 북쪽 유혹을 물리치라.



▶▶▶ 주위에 사람은 많으나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은 없다. 아무나 믿지 말고 선택하는 데 각별히 신경 쓰라. 1, 3, 11월생 남녀 관계로 마음 고생하겠으니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동, 북쪽에 길이 있다.



▶▶▶ 의욕이 상실돼 중도에 포기할 염려가 있다. 애정은 삼촌보다 대화로서 감싸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 냉정함을 풀라. 변동이나 새로운 것을 구상해도 힘이 못 미치니 생각만으로 끝나기 쉽다. 9월생 나를 억제하라.



▶▶▶ 소자본이라도 과감히 투자하면 생각보다 득이 크다. 진실한과 근면한으로 차차도 반겼다. 어려운 일은 타인에게 협조를 받아 이루는 수다. 애정은 남자 쪽에서 너무 적극적이다. 3, 5, 9월생은 자신감 유무에 승리가 좌우될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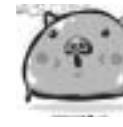
▶▶▶ 마음만큼 행동이 따라주지 않아 답답한 상태다. 그러나 미련을 버리고, 희망을 품고 전진해야 한다. 가정에 가볍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날이다. 건축업 생산직 종사자는 뒷일을 생각하라. □, Ⓜ, Ⓝ, Ⓞ 성씨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



▶▶▶ 심신이 피로하니 집안일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라.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다. 꾸가할 때 선물을 아끼지 말라. 마음이 한층 편할 것이다. 4, 7, 12월생 투기로 한몫 보려는 욕심은 버리고 한층 쌩쌩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라.



▶▶▶ 동, 남쪽에 이력서가 있으면 통지가 온다. 가증으로 물을 급하게 마시면 물도 체할 수 있으니 순리대로 서서히 움직이라. 큰 욕심은 내지 말아야 한다. 순례수가 따른다. 의류, 직물 업자는 길하다.



▶▶▶ 몸에 흉터가 있다 해도 목욕탕에 못 가지는 않는다. 내 사업이든 남의 사업이든 흥은 있기 마련이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드 구설로 시비가 우려된다.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소, 개, 꽃, 용띠에게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라.